

NEWSLETTER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2024 #2

01 Highlight

AFoCO 제10차 총회
FAAF, Let's Forest 몽골 원정대
Interview : 진재승 유한킴벌리 사장

02 News Brief

AFoCO, 2천만불 규모의 탄소 크레딧 조림 사업 추진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메콩 REDD+ 사업 본격화
룩시땅과 함께 서울 불암산 산불피해지 생태 복원
사막화 방지의 날 행사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라 산림협력 확대
제 26회 IUFRO 세계 총회
Other News Digest

03 Global Trend

2024 탄소가격제 동향
자발적탄소시장 동향

04 Review & Insight

AFoCO 회원국의 파리협정 6조 협력 동향
AFoCO 회원국의 NDC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가 REDD+ 이행 동향

05 Impact Story

06 Column

07 Upcoming Event



AFoCO 제10차 총회

2024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AFoCO 제10차 총회가 특별총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매뉴얼과 인사규정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FAAF 출범이 보고되었고, UNFF, UNFCCC 등 글로벌 프로세스에서 파트너십 강화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총회는 Climate Asset Management를 통한 기후 금융 접근법의 새로운 기회를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총회 부대 행사로 키르기스스탄 농부들에 대한 혼농임업-탄소 프로젝트(ACORN) 탄소 크레딧(Carbon Removal Unit) 전달식이 있었다. 이 행사를 통해 AFoCO와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수자원 및 가공 산업부, 비상 사태부, 라보뱅크 등 4개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 ACORN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FAAF, Let's Forest 몽골 원정대

AFoCO는 지난 2월 출범한 FAAF의 현장 탐방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Let's Forest 아시아 원정대' 프로그램의 첫번째 행사로 몽골 원정대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몽골에 조성된 수원시민의 숲 견학, 고르키-테를지 국립공원 생태탐방, 몽골 식목일(5월 둘째주 토요일) 기념 나무심기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나무심기 행사에는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세바스티앙 수론 프랑스대사,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이마트, 대한항공, 야긴 코퍼레이션, (사)푸른아시아, 제주 올레, 몽골 과기대 등 몽골과 한국의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나무(*Pinus sylvestris*), 낙엽송(*Larix sibirica*) 등 약 2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 대상지는 한몽그린벨트 3단계사업 (2022-2026)의 민간협력 참여숲(12.5ha)으로 한국의 기업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된 곳으로 몽골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곳에 상징적인 숲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숲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몽골 정부의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Interview

진재승 유한킴벌리 사장

“4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흔들리지 않고 캠페인을 이어온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FAAF에도 유한킴벌리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어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길 기대”



유한킴벌리는 AFoCO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 성과를 돌아보며 FAAF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5월 29일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환경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진재승 사장은 인터뷰 내내 긍정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인터뷰는 연합뉴스TV 박진형 앵커가 진행했다.

Q. 유한킴벌리는 모범적으로 한국과 몽골의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특히 산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유한킴벌리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당대의 사회적 이슈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초에는 산업화로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시기에 국토 녹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혼부부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해외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진화되었다.

산림분야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동이라 여겼기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숲을 가꿔올 수 있었다.

Q. 올해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40주년을 맞았는데 그 성과와 의미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단순히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을 넘어 숲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시켜 온 캠페인이다. 단계적으로 시작된 캠페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5천 7백만 그루의 나무를 가꾸며, 국내 1,277곳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고, 생태맹과 학교폭력 극복의 대안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숲 운동을 전개했으며, 공존숲과 탄소중립의 숲 조성, 기후 위기로 인한 멸종위기 식물 보전 등 현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모델로 캠페인을 진행하였기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캠페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Q. 유한킴벌리의 캠페인이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다. 또한, 각 기업이 가진 비전과 목표에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일치시키고, 이를 이해관계자, 특히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내부구성원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 기업문화로 내재화될 수 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4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도 직원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 지난해 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입사 이후 회사 이미지 변화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꼽았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만으로도 사원 만족도를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어떤 사회 구성원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구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매출의 95%를 지속가능한 제품에서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ESG 경영은 이제 기업 생존의 문제이니 만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노력하겠다.

Q. FAAF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먼저, 산림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 최근 산림을 통해 탄소중립과 ESG 환경 성과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탄소사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기업들과 산림을 통한 기후 솔루션에 적극적인 아시아 각국의 공공기관, 그리고 산림녹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기후위기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림분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 낼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지속하는 힘’을 제안한다. AFoCO에서 함께하는 기업과 단체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과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아시아산림네트워크를 가진 FAAF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지?

아시아의 산림을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기여하고자 하는 FAAF의 취지와 목적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의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FAAF’의 새로운 역사는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AFoCO 16개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성장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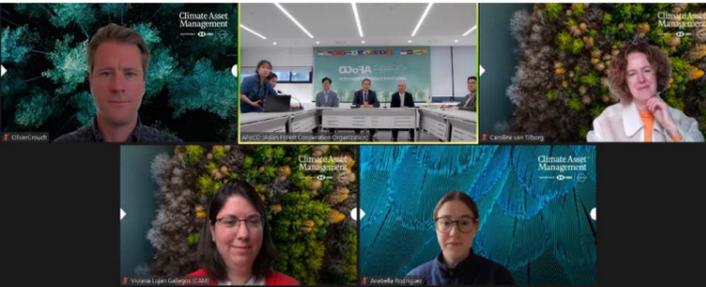
끝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도 여러 좋은 모델 중 하나가 되어 FAAF가 추구하는 공동목표와 다양한 아젠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사막화 되어 가던 숲을 복원한 ‘몽골 유한킴벌리 숲’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FAAF가 기업들이 ‘산림을 통한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AFOCO, 2천만불 규모의 탄소 크레딧 조림 사업 추진

AFoCO는 6월 3일 영국 런던 소재 기후자산운용사 (CAM; Climate Asset Management)¹ 와 “아시아 지역 탄소 크레딧 조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5년간 AFoCO와 CAM은 경관 복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AFoCO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CAM의 투자는 박종호 사무총장이 취임부터 추진해온 AFoCO 10년 기후 행동계획(Climature Action Plan)이 국제사회로부터 영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AFoCO는 2024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탄소 크레딧 산림녹화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키르키즈스탄, 몽골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메콩 REDD+ 사업 본격화

AFoCO는 6월 12-14일에 걸쳐 캄보디아 스텝트렝 주에서 ‘메콩 REDD+ 프로젝트’ 현판식, 지역주민 설명회, 주지사 간담회, 지역대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착수한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30년동안 산림 전용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우리은행 및 캄보디아 산림청 협력을 통해 스텝트렝 주 4개 군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14개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약 3만 헥타르(ha)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지역은 람사르 협약의 주요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생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¹ CAM은 2020년 HSBC가 기후변화 자문회사 폴리네이션(Pollination)과 협력해서 설립한 자연자본(natural Capital) 부문 자산운용사로서, CAM의 투자전략인 자연자본 전략(Natural Capital Strategy)은 중요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 및 복원하고 상업적인 장기 수익을 제공하며, 자연 기반 탄소 전략(Nature Based Carbon Strategy)은 넷제로를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탄소 크레딧을 공급한다.

록시땅과 함께 서울 불암산 산불피해지 생태 복원

‘불암산 산불 피해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4월 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철쭉동산에서 개최되었다. AFoCO, 록시땅 코리아(L'OCCITANE Korea), 서울시 노원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록시땅의 지원으로 2022년 산

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불암산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 동안 AFoCO와 록시땅 직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총 3,15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사막화 방지의 날 행사

6월 17일 산림청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²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몽골 대사의 축하와 함께 초·중·고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매년 6월 17일을 기억하고 사막화 방지에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

였으며, AFoCO, 대한항공, 미래숲, 유한킴벌리, 이마트, 지구촌나눔운동, 평화의 숲, 푸른아시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패가 수여되었다.



²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국제연합(UN)에 의해 지정되었다.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라 산림협력 확대!³

6월 12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현 산림청장과 예를란 느산바예프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이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만ha에 이르는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해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림청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산불 예방·대응 및 피해지 복원 등으로 산림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자협력과 수목원, 산림위성사진과 판독기술 등 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제 26회 IUFRO 세계 총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 세계 산림 전문가, 정책 입안자,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제26차 세계총회가 “2050년을 향한 산림과 사회”를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총 4,3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3,500개의 발표와 70개 이상의 혁신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완화에서의 산림 역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종호 AFoCO 사무총장은 IUFRO가 주최한 “지역 내 산림 거버넌스 - 이해관계자 대화” 세션에 아시아 대표로 참석하여 아시아 산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해 아시아 산림 보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AFoCO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³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6월 13일자

Other News Digest

SK이노베이션, 사회적 책임(CSR)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맹그로브 사업 지원

4월 5일, SK이노베이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라장 맹그로브 국립공원 맹그로브 재야생화 프로젝트(RMNP)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22,000그루의 맹그로브 묘목(Rhizophora apiculata)이 심어질 예정이다.

ICVCM, 산림탄소 스탠다드인 VCS와 ART 승인

5월 2일 자발적 탄소 시장 청렴 위원회(ICVCM)는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가 절차를 크게 변경한 후 고무결성 핵심 탄소 원칙(CCP)을 충족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REDD+ 거래를 위한 아키텍처(ART, Winrock International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로써 고무결성 핵심 탄소 원칙(CCP) 프로그램은 ACR, CAR 및 Gold Standardmf 포함 다섯개이다.⁵

전문가 61%, 이번 세기 지구 온도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

5월 8일자 가디언은 2018년 이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요 저자 및 편집자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4%가 넘는 358명이 1.5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이 정치적 의지 부족을 꼽았으며, 60%는 기득권 기업, 특히 화석 연료 산업이라고 답했다.⁷

⁴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9-024-02406-8>

⁵ <https://icvcm.org/integrity-council-confirms-verra-and-art-meet-its-high-integrity-benchmark/>

⁶ The Laotian Times 5월 9일자

⁷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article/2024/may/08/world-scientists-climate-failure-survey-global-temperature>

⁸ <https://www.esgtoday.com/microsoft-signs-another-reforestation-based-carbon-removal-megadeal/>

유럽 수목 69종 중 9종만이 미래에 적합

비엔나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와 뮌헨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해 유럽 나무 69종 중 영국 참나무 등 9종만이 미래 재조림에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단순림보다는 산림 생존을 위해 혼합림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필수라고 밝혔다.⁴

라오스, 산림탄소배출권 이니셔티브 시작

라오스 정부는 AIDC Green Forest와 협력하여 산림 파괴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림탄소배출권 이니셔티브(REDD+)를 시작한다고 5월 5일 서명식에서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난 2022년 12월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하며 170만 ha 달하는 10개 산림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포함된다.⁶

Microsoft, 재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에 박차

5월 13일 Microsoft는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 스타트업인 Re.green과 브라질에서 재조림 프로젝트를 통해 300만 톤의 크레딧을 15년간 구매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탄소 제거 계약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16,000ha 이상의 황폐화된 목초지를 복원하고, 아마존과 대서양 숲에 최소 1,07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⁸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¹⁴

2023년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크레딧 거래 가치는 7억3천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평균 크레딧 구매가격은 6.53USD/CO₂e톤이었다.

임업 및 토지이용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추가성 논란으로 인해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각각 68%, 69% 감소하였다.

Category	2022			2023			Percent Change		
	Volume (MtCO ₂ e)	Value (USD)	Price (USD)	Volume (MtCO ₂ e)	Value (USD)	Price (USD)	Volume	Value	Price
Forestry & Land Use	1130.0	\$ 1.1 B	\$ 10.14	36.2	\$ 351 M	\$ 9.72	-68%	-69%	-4%
Renewable Energy	92.7	\$ 386 M	\$ 4.16	28.6	\$ 111.1 M	\$ 3.88	-69%	-71%	-7%
Chemical Processes/ Industrial Manufacturing	13.3	\$ 68.5 M	\$ 5.14	12.2	\$ 50.2 M	\$ 4.10	-8%	-27%	-20%
Household/ Community Devices	9.1	\$ 77.6 M	\$ 8.55	9.9	\$ 76.6 M	\$ 7.70	+10%	-1%	-10%
Energy Efficiency/ Fuel Switching	6.6	\$ 35.6 M	\$ 5.39	9.4	\$ 34.4 M	\$ 3.65	+43%	-3%	-32%
Agriculture	3.8	\$ 41.7 M	\$ 11.02	4.7	\$ 30.6 M	\$ 6.51	+24%	-26%	-41%
Waste Disposal	6.2	\$ 44.9 M	\$ 7.23	1.5	\$ 10.9 M	\$ 7.48	-77%	-76%	+3%
Transportation	0.18	\$ 770 K	\$ 4.37	-	-	-	-	-	-

임업 및 토지이용 사업 유형 중 세부사업 유형에 따라 거래량 및 가격 추세 변화

-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 전년 대비 거래 규모 51% 감소, 가격 23% 감소
- **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원(ARR)** : 전년 대비 거래 규모 62% 감소, 가격 31% 증가
- **산림경영개선(IFM)** : 전년 대비 거래규모 47% 감소, 가격 11% 증가
- **블루카본** : 전년 대비 거래규모 89% 감소, 가격 28% 감소

Project Cluster	2022			2023		
	Volume (MtCO ₂ e)	Value (USD)	Price (USD)	Volume (MtCO ₂ e)	Value (USD)	Price (USD)
REDD+ (ALL)	57.4	\$ 584.2 M	\$ 10.19	28.2	\$ 222.3 M	\$ 7.87
Afforestation-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ARR)	10.8	\$ 129.8 M	\$ 12.05	4.1	\$ 64.8 M	\$ 15.74
Improved Forest Management (IFM)	4.5	\$ 66.2 M	\$ 14.67	2.4	\$ 38.9M	\$ 16.21
Blue Carbon	3.4	\$ 39.3 M	\$ 11.58	0.38	\$ 3.2 M	\$ 8.33

REDD+ 프로젝트 유형은 임업 및 토지이용 범주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대부분(78%)을 차지했고, ARR 및 IFM 배출권은 각각 11%와 7%를 차지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권은 임업 및 토지 이용 거래량의 36%를 차지했고, 그 뒤를 아프리카(25%)와 아시아(18%)가 이었다. 이 범주는 2023년에 가장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이 거래되었고, VCS는 총 거래량의 85%로 임업 및 토지 이용 배출권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표준이었다.

이 범주에는 가정이나 지역 사회 수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모든 프로젝트가 포함되는데, 인기 있는 프로젝트 유형으로는 효율적인 조리용 스토브와 정수 장치 분배가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을 완화한다. 커뮤니티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농촌 지역에서 화석 연료가 없는 난방 및 조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인프라가 있다.

가정/커뮤니티 기기 크레딧 거래량은 2022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깨끗한 조리용 스토브 크레딧 거래가 증가하여 이러한 성장의 거의 전부를 담당했다. 대부분의 가정/커뮤니티 기기 프로젝트는 아프리카(56%)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은 아시아(14%)였다. 2023년 이 범주에서 거래된 크레딧 양의 55%는 Gold Standard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은 VCS 프로젝트(40%)였다.

Ecosystem Marketplac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 및 사회적 공편익을 제공하는 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편익을 제공하는 탄소사업의 크레딧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생물다양성 혜택이 크레딧 구매의 주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시사한다.

¹⁴Ecosystem Marketplace의 "State of Voluntary Carbon Market 2024"를 참고함.

AFoCO 회원국의 파리협정 6조 협력 동향

UNFCCC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국가 결정 기여(NDC)를 제출해야 하며, 파리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감축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여 NDC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FoCO의 16개 회원국 모두 NDC를 UNFCCC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10개 국가¹⁵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기에 협력적 접근법을 통한 협력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AFoCO 회원국 중 12개국이 파리협정 6조에 기반한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AFoCO회원국과의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한 국가는 일본(10개국)¹⁶, 싱가포르(5개국)¹⁷, 스위스(1개국)다.

양자협력 협정 체결 국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을 위한 양자협력을 2013년도부터 다수의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하였고, 2023년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 협정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로 확장
싱가포르	자국의 탄소세 과세 기점이 최대 5%를 탄소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International Carbon Credit (ICC) 체제를 운영 중이며, ICC 기반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하여 6조 기반 협력을 확장
스위스	2021년도에 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E-Bus 프로그램의 감축성과 중 1,916tCO ₂ e를 ITMO로서 이전하는데 합의, 세계 첫 ITMO 이전 사례를 제시

AFoCO 회원국 간의 6조 협력으로는 대한민국은 베트남(2021년), 몽골(2022년), 가봉(2023년), 우즈벡(2023년)과 기후변화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장관 간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협정 이후 실질적인 감축 사업 및 이행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는 각국의 NDC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부문의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비용 효과적인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UNFCCC의 관련 결정과 지침을 준수하는 REDD+ 및 산림 기반 협력적 접근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¹⁵ NDC 조건부 감축 목표 설정 10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타지키스탄
¹⁶ 일본 JCM 협정을 체결한 AFoCO 회원국(10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¹⁷ 싱가포르와 6조 협력 협정을 체결한 AFoCO 회원국(5개국):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AFoCO 회원국의 NDC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가 REDD+ 이행 동향

REDD+의 이행은 준비(Readiness), 이행(Implementation) 및 감축실적기반보상단계(Result based payment)로 구분된다. 준비단계는 국가별 전략 및 정책 개발과 능력 배양을 포함하고, 이행단계는 시범사업을 포함한다. 감축실적기반보상단계는 MRV(측정, 보고, 검증)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단계다. UNFCCC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RF)¹⁸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MRV 체계 구축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AFoCO 16개 회원국은 NDC에 LULUCF¹⁹부문을 국가 감축 및 적응 수단으로 제출하였다. 12개국은 LULUCF 부문의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련 정책과 수단을 언급하였고, 11개국이 LULUCF를 활용한 적응을 언급하였다.

UNFCCC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WRF 기반 국가 REDD+에 참여 중인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WRF에 기반한 감축실적을 제출한 국가는 5개국(인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이며, 성과기반 보상을 수령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나머지 6개국(미얀마, 태국, 부탄, 동티모르, 몽골, 필리핀)은 WRF의 4가지 필수요소를 갖추는 준비 단계에 있다. 앞으로 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또는 협력적 접근법을 통한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REDD+ 협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NDC			적응	국가 REDD+ 이행 단계		
	목표	정책	수단		준비	이행	감축실적 기반 보상
인도네시아	○	○	○	○	○	○	○
캄보디아	○	○	○	○	○	○	-
라오스	○	○	○	○	○	○	-
베트남	○	○	○	○	○	○	-
미얀마	○	○	○	○	○	-	-
태국	○	○	○	○	○	-	-
부탄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동티모르	○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
몽골	-	○	-	○	○	-	-
카자흐스탄	○	○	-	-	-	-	-
대한민국	○	-	○	-	-	-	-
타지키스탄	-	-	○	○	-	-	-
필리핀	-	-	-	○	○	-	-
브루나이	○	-	-	-	-	-	-

(Climate Watch, 2024; UNFCCC REDD+ Web Platform, 2024의 자료 활용)

¹⁸ 국가 수준의 MRV 체계 구축에는 국가전략 또는 행동계획(NS/AP), 산림배출기준선 및/또는 산림기준선(FREL/FRL),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NFMS), 세이프가드에 대한 요약 정보(SIS)의 4가지 필수 요소를 포함함.
¹⁹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라오스의 마을기반 산림복원 사업

국민의 약 80%가 생계를 산림에 의존하여 산림 훼손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라오스 정부는 2007년 화전 방지를 위한 산림법을 개정하였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작지 확보와 현장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해 한때 국토의 70% 이상이었던 산림은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6년 AFoCO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성공 사례를 적용하여 라오스 쌍퉁과 팍송 지역에서 마을 주민 주도의 산림 훼손지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다(아래 지도 참고). 최근 다른 지역의 마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사업 개발자들이 본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지를 방문하고 있는 등 올해 9년째 맞는 이 사업은 라오스 마을주도형 산림복원의 모범적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FoCO는 실제 사업활동의 세부사항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사업지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행 방식을 통해 현지에서의 실행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 참여 마을 주민들은 산림관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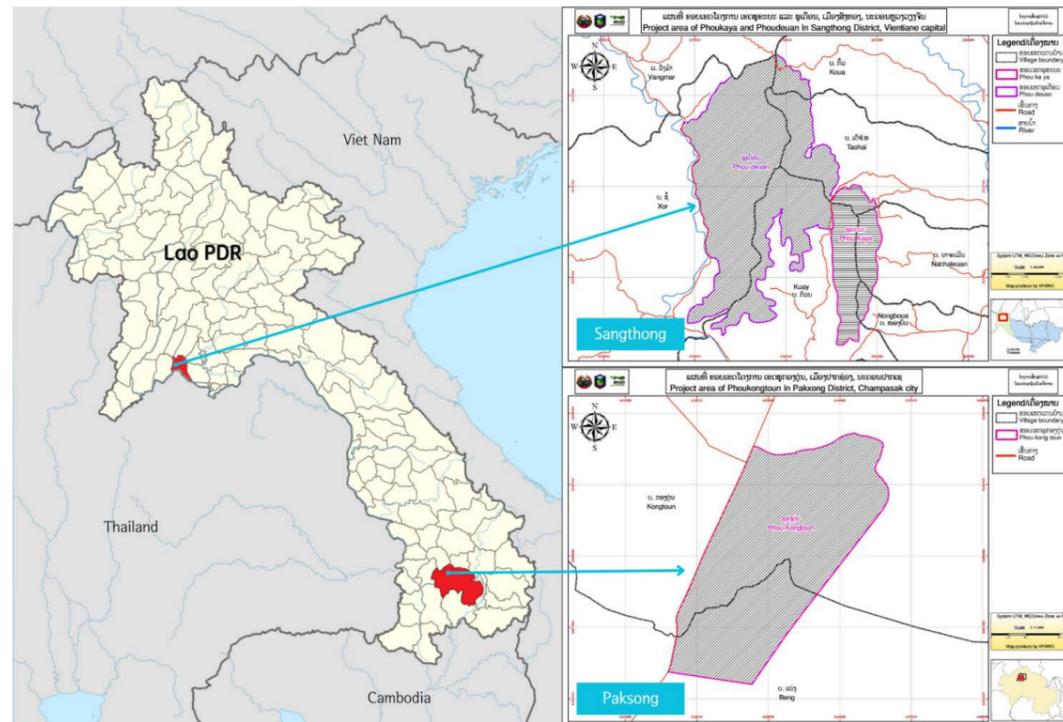
위한 자치단체(Village Forest Management Group, VFMG)결성부터 산림복원을 위한 육묘와 식재 및 마을 기반 산림복원 지침 개발까지의 모든 사업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팍송의 경우 쿠프툰과 벵카투드 마을 산림관리 자치그룹에 가입한 45명의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 양묘장 운영을 통해 17만 본의 묘목을 생산하고 총 600ha의 산림을 복원하였다. 2023년 11월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팍송 지역 산림관리그룹의 리더인 Yeng씨는 “산림관리활동을 통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양묘 및 비목재임산물(NTFPs) 생산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연평균 소득이 약 70% 증가 되었으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산림관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마을 공동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산림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업초기 라오스 산림부와 마을주민들 간에 체결된 사업이행계약은 사업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설계 과정에서 규정된 세부활동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라오스 산림부는 사업의 이행과 관리를 지방조직(District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DAFO)에 위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성공적인 중재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부 산림국의 부국장이자 본 사업의 총 책임자인 Oupakone박사는 본 사업을 모델로 독일연방개발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으로부터 770만 유로 규모의 마을기반 산림 관리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AFoCO 사업을 통해 마을 기반 산림복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2019년 산림 관리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라오스 산림법 개정시 법령 이행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지난 4월 발표된 2023 열대림 손실 보고서(World Resources Institute)에 따르면 농경지 확산으로 인한 라오스의 산림 훼손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2030년까지 산림 면적을 국토의 7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 관리에 대한 마을 주민의 주인의식과 지방 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산림 녹화 성공 사례가 어떻게 라오스에 접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장미²¹

봄 꽃소식은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빨리도 지나 이젠 여름의 한복판입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꽃 소식들도 계절 따라 변해갑니다. 산과 들에는 복수초를 시작으로 금낭화, 철쭉, 이젠 나리 꽃소식이 들려오겠지요. 지역마다 열리는 꽃축제도 수선화, 튜립에서 시작하여 이젠 여기저기 수국 잔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이어지는 꽃소식은 장미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시작한 장미의 개화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난 지금에도 이어집니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무색하게 품종에 따라 꽃 피는 시점들이 다릅니다. 다양한 빛깔의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가 헤아릴 수 없네요. 장마를 만나고 향유할 이 땅의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생각하면 절로 행복한 기운이 전해져 옵니다. 멀리 길 떠나지 않아도 곳곳의 정원에 이웃집 담장에 어디든 장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득 2년전 보았던 “베르네부인의 장미 정원”이라는 프



랑스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최고의 장미농장을 이어받은 베르네 부인은 장미를 공장의 상품처럼 생산하는 사업주의 사업가에 밀려 파산 직전에 이릅니다. 좋은 혈통의 품종을 몰래 훔쳐와 교배하여 새 품종을 만들어 극복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는데, 우연히 초보 직원이 주변에 야생하는 돌가시나무(장미집안으로 번역되어서 정확한 종확인은 못했습니다)와 교배를 연습하던 것에서 최고의 품종이 탄생하여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화의 주제는 인생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장미를 키우며 치유되고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장미로 가득했던 화면과 정원사들의 삶이 잘 담겨 제겐 오랜만에 느낌이 아주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리저리한 노력으로 2만5천종류 정도의 장미품종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 다양한 빛깔과 향기와 모습들은 모두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야생의 종들이 담고 있는 무궁한 형태적, 생리생태적, 환경적응력 등 다양하고 풍성한 유전적인 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영어로는 로즈(Rose), 학명으로는 로사(Rosa)속에 속한 식물을 통틀어 지칭합니다. 우리나라 식물 중에는 찔레, 해당화, 인가목, 생열귀나무, 돌가시나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 모두가 장미인 셈입니다. 우리가 요즈음 장미라고 인식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서양장미 품종 들입니다. 재미난 것은 삼국사기에 실린 설화 화왕계, 고려시대 한림별곡에도 장미가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보았던 장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춘기 시절엔 장미를 사랑하던 시인 릴케가 연인에게

주려던 장미가시에 찢린 것인 원인이 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 살고 사랑이란 무엇일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이에 영향 받고, 성년이 되어서는 누가 붉은 장미 100송이를 안겨줄까 설레이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겠지요. 그 이후 우리는 축하와 기쁨을 전하는 순간 순간에 장미를 건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깊어지는 숲 길에서 만난 진짜 우리 장미 계곡의 찔레나 바닷가의 해당화가 주는 싱그러움과 맑은 향기가 더욱 감동적입니다. 외국에서 개량된 장미를 수입하지 않고 야생의 장미들을 가까이 느끼는 것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벌과 나비같은 다른 생명들을 함께 부르는 일도 되니 더욱 가치있습니다.

혹시 생물다양성이라는 시재의 화두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의 아름다움과 유용함이 그들이 가지는 다양성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²⁰ 이유미 전 국립세종수목원장

²¹ 본 내용은 2024년 5월 22일자 한국일보 [이유미의 생명과 공존] 칼럼을 저자가 일부 재편집한 것입니다.

2024년 산림위원회(COFO) 및 세계산림주간

(7.22-26, 이탈리아 로마)

제27차 산림위원회(COFO) 회의가 2024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FA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COFO 세션에는 고위급 대표, 정부 공무원 및 파트너 기관이 모여 새로운 정책 및 기술 지침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모색하며, 미래 전략 및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COFO 27은 제9회 세계산림주간(WFW 2024)과 함께 '혁신을 통한 산림 솔루션 가속화'를 주제로 개최되는데, COFO 27의 하이라이트는 FAO의 대표 간행물인 2024년 세계 산림 현황(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24)의 발간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산림 부문 혁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The 8th IUCN Asia Regional Conservation Forum

(9.3-5, 태국 방콕)

제8회 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RCF)이 2024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의 보전 재구상: 자연과 긍정적인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4년마다 개최되는 IUCN 아시아 지역 보전 포럼(RCF)은 자연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의 주요 이해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지역 내 지식과 파트너십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 역할을 한다.

올해 IUCN 아시아는 제8차 RCF를 개최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자연에 긍정적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변혁적 방향과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Climate Week NYC 2024

(9.22-29, 미국 뉴욕)

Climate Group이 주최하는 Climate Week NYC가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매년 유엔 총회와 협력하여 개최되며 유엔 및 뉴욕시가 운영한다. 비즈니스, 정부, 기술, 학계 및 시민 사회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의 구호인 "It's Time"과 연계한 기후 행동을 주도하는 행사다.

이번 주간에는 광범위한 기후 주간 NYC 이벤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과 전 세계에서 10가지 주제에 걸쳐 500개 이상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초점은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UN생물다양성협약COP16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협약COP29에서 열릴 중요한 논의와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FAAF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AFoCO에서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산림 탄소 사업'을 주제로 첫 번째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기업, 단체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 27일(화) 10-12시, AFoCO 사무국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문의: 김형민 (Tel: 02.785.8964 / E-mail: kimhm0217@afocosec.org)



파리 올림픽과 산림프로젝트



파리 2024는 올림픽의 탄소 발자국을 2012 런던 올림픽과 2016 리우 올림픽의 평균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175만톤)를 세웠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도쿄 2020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 대회의 평균 탄소 발자국은 350만톤 CO₂e이었다. 5년 동안 대회를 준비하면서 476,000 teqCO₂가 이미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대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산림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일드프랑스의 플렌 드 피에르-브산쿠르(Plaine de Pierrelaye-Bessancourt)에 1,340ha의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와 몽모랑시(Montmorency), 보주(Vosges) 및 아이스네(Aisne)의 황폐화된 숲을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과테말라와 케냐의 수천 헥타르의 산림황폐화 방지사업과 세네갈의 맹그로브 복원이 그것이다. 파리올림픽의 탄소기어 프로그램은 PDF 파일²²로 제공된다.

²² PDF - Paris 2024 carbon contribution.projects



NEWSLETTER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07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2층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12F. SIMPAC Building, 52,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07330,
Republic of Korea

www.afocosec.org
info@afocosec.org
+82 2 785 8971 (T)
+82 2 785 8970 (F)